



새누리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회에서 지도부 즉각 사퇴와 윤리위 원상복구라는 사무처의 요구와 관련, 지도부의 거부에 대해 사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사무처의 요구를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무처 당직 거부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결의했다. 사무처는 지난 2007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화성 국회의원 보궐 선거 공천결과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후 9년 8개월 만에 당무거부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 친박 vs 비박 당권잡기 명운 건 수싸움

### 친박, 정진석 유임 논의·비대위원장 후보 지명 추진

### 비박, 원내대표 경선 나경원 당락별 시나리오 검토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 이후 당내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양 계파가 당내 대표 경선을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사실상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오는 21일 현 지도부 사퇴 이후 당 수습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양 계파가 사활을 건 대결을 벌일 태세여서 앞으로 1~2주가 새누리당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친박계에서는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 경선을 취소하고 정진석 원내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한때 논의됐던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는 나경원 의원이 당선될 경우 비박계

가 원내사령탑을 차지하는 물론 현 지도부가 사퇴한 이후 대표 권한대행 자리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커 당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반대로 친박 주류 측 후보인 정우택 의원이 선출되더라도 비박계 좌경적인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하면 당이 결국 조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주영 의원을 비롯한 중도성향 의원 20여명은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하고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 단일후보 추대를 추진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선거 일정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비박계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이 있기 전에 그런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후

보통목까지 끝난 마당에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비박계 측에서는 이 같은 논의 자체가 당의 쇠퇴를 방해하고 친박 해계모니를 유지하려는 술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비박계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와 낙선할 경우에 모두 대비해 ‘친박 진압’ 혹은 ‘집단 탈당’ 등의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이 원내대표직에 오를 경우 현 지도부가 사퇴한 이후 비대위 구성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표 권한대행을 말도록 함으로써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친박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신임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패배할 경우에는 집단 탈당, 즉 분당을 통해 ‘새로운 보수’의 길을 모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비대위 구성을 놓고도 진통을 겪을 게 확실시되고 있다.

비대위를 꾸리려면 먼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구성해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비대위원장 추천이다. 현 지도부는 이 대표가 비대위원장 후보를 지명하고 전국위까지 소집하는 게 ‘마지막 책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친박계에선 최고위원 출신의 김태호·이인제 전 의원이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호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비박계가 이런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한 비박계 의원은 “당을 망친 사람이 자기 손으로 후임을 앉히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사무처는 당 지도부가 중앙윤리위원회의 박근혜 대통령 징계심사를 막으려고 친박계 인사를 총원한 따른 반발로 이날 당무 거부에 들어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운찬, 대권 도전 공식 선언

### 제3지대론 활기 떠나 주목



얇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캠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대선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조직화된 대선캠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동반성장 가치에 동의하는 분들이 모이는 개인 사무실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출마를 공식화하고 정치 행보를 할 경우 함께 할 세력을 결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를 겨냥, “단 한정중단 사태를 야기한 정치세력과의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동반성장연구소장인 정 전 총리는 15일 입장자료를 내고 “대선출마를 마음 먹은 것은 사실”이라고 표명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총정권 인사인 정 전 총리가 새누리당 친박을 제외한 모든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제3지대론’이 탄력받을 가능성을 비롯해 정계개편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그러나 정 전 총리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화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월 중 출마선언”에 대해 “1월 중 출마선언은 대선출마를 공식화한다면 빨리든 대선 일정을 고려해 그 즈음에는 해야 하지

## 민주 “내년 전·월세 한시적 동결 검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부담문제를 해결하면 지역경제는 물론 세입자 중 청년세대에게 주는 희곡을 이점으로 생각한다”며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가·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발표에 대해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 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이미 1300조원을 넘었는데 실물경기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커질 것인데, 이는 곧 가계 처분 소득을 줄이게 되

고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가 어렵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수위축을 막고 소비를 진척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우리 당은 700만 자영업자와 2500만 세입자에게 가계·영업부담을 줄이는 상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계약상선 청구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추며 가계소득을 줄이는 정책인 파견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정책해야 한다”며 “조속히 국회·정부 간 정책협의를 열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황교안 “정당별 만나자”... 야권은 이견

### 여·야·정 협의체에 역제안... 민주 “거부”·국민의당 “수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이 15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제한한 야권을 향해 “정당별 회동”이라는 역제안 카드를 내놓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거부와 수용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황 권한대행측은 이날 새누리당의 내분 사태로 여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동을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일단 개별적으로 만나서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 신임 대표가 선출되기만을 기다렸다가는 대화가 좀처럼 진전을 이룰 수 없지만, 개별 회동을 한다면 협치의 물꼬를 트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것보다 여당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야 3당 대표와 1:3 회동을 한다면 야당에 둘러싸여 협공을 당할 수 있지만, 개별 회동을 한다면 야당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국정의 조속한 안정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야·정 협의체는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거부’와 ‘수용’이라는 엇갈린 입장을 보여 ‘포스트 탄핵’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야권 내부의 미묘한 견해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추미애 대표는 총리실

의 정당별 대표 회동 제안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주요 정당대표들이 권한대행을 만나 협의 개념으로 논의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쪼개서 만나자는 것은 공생한 역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만나 황 권한대행과 당별 대표 회동이 “임시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여야정 협의체로 만나는 게 바람직하지만 새누리당의 친박 대표 때문 안 될 경우 황 권한대행이 각 당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황 권한대행은 이날도 서울청사에서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야권의 공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

## 김부겸 “文, 개헌 앞장서 달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5일 문재인 대표를 향해 “개헌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개헌)이 우리가 정권교체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 정치교체까지 이룩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고 주장했지만, 문 전 대표는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촛불시민이 원하는 것이 정권교체와 정치교체의 동시 완수와 생각한다”며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정치가 교체되지 않으면 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죽하면 2009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지 마라’는 화한에 찬 글을 남겼겠느냐”라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이다.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또 실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16-00592호(번) (2016.09.2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6호(2016.09.20)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2.40%**  
(연이율, 월복리, 세전이율, 만기이자지급)

**부동산담보대출!!**  
**신속자금대출!!**  
**할인어음!!**

**더블저축은행**  
본점 (062) 223-5506

구도청1 | 충청마을소 | 관주새우서  
• 국민은행 • NO WAVE  
더블저축은행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

1. 공매 대상 물건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1530-2(동:신원동,지번:001011)

구분	종류	면적(㎡)	잔액(₩)	잔액(USD)	구분	
1	205호	84.8916	49,8225		101동	
2	803호	84.8916	49,8225			
3	805호	84.8916	49,8225			
4	903호	84.8916	49,8225			
5	905호	84.8916	49,8225			
6	1005호	84.8916	49,8225			
7	1007호	84.8916	49,8225			
8	1105호	84.8916	49,8225			
9	1205호	84.8916	49,8225			
10	1305호	84.8916	49,8225			
11	1405호	84.8916	49,8225			
12	1505호	84.8916	49,8225			
13	1603호	84.8916	49,8225	102동		
14	1705호	84.8916	49,8225			
15	1803호	84.8916	49,8225			
16	1905호	84.8916	49,8225			
17	1907호	84.8916	49,8225			
18	2003호	84.8916	49,8225			
19	2105호	84.8916	49,8225			
20	2205호	84.8916	49,8225			
21	103호	84.8916	49,8225		887동	
22	105호	84.8916	49,8225			
23	801호	84.8916	49,8225			
24	803호	84.8916	49,8225			
25	1001호	84.8916	49,8225			
26	1401호	84.8916	49,8225			
27	2002호	84.8916	49,8225			
28	1000호	84.8916	49,8225			
29	201호	64.4000	57,6156			
30	202호	45,0000	40,2344			
31	203호	44,0000	39,2344			
32	204호	48,0000	42,9733			
33	301호	64.4000	57,6156			
34	302호	45,0000	40,2344			
35	303호	45,0000	40,2344			
36	304호	48,0000	42,9733			

2. 공매참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동:신사동,지번:00119) (지구공매신착) 제111호  
\* 문의처: 020 3456-0000

3. 입찰일시 및 최저입찰가격  
(1) 입찰일시  
1) 1차 입찰일시: 2016년 12월 29일 10:00~11:00  
2) 2차 입찰일시: 2016년 12월 29일 15:00~16:00  
3) 3차 입찰일시: 2016년 12월 29일 10:00~11:00  
4) 4차 입찰일시: 2016년 12월 29일 15:00~16:00  
(2) 최저입찰가격  
- 당시 홈페이지(http://mtr.com) 상 공매공고 참조 바람.

4. 참고  
(1) 유찰시 전 회차 기간의 10%에 달하는 금액에 입찰가액의 10%를 초과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발생한다.  
(2) 각 회차 공매일시 후,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일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수락받지 못한 경우, 당 회차공매금 반환의 요청에 따라 공매차수금 반환이 불가하다.  
(3) 본 공매공고 공매일시 및 최저입찰가격은 당 회차 입찰시 시점의 시세에 변동될 수 있다.  
(4) 공매공고 참조 바람.

5. 입찰방법: 일반경매입찰(단, 단독응찰도 유요)  
(1) 공매참조가 이상 최고가 금액에 낙찰한다.  
(2) 최고가 이상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 입찰자를 대상으로, 최고가 입찰자를 최저공매가격으로 하여 낙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단, 동 회차 입찰일시 당일 입찰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공매가격으로 낙찰을 결정한다.

6. 입찰보증금  
(1)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과 각 회차 입찰금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입찰금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금 및 입찰보증금의 10% 이상을 입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입찰금: 출당증

7. 유의사항  
(1) 공매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법적제한사항은 매수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 있다.  
(2) 공매부동산의 현황과 상세한 설명은 매수인에게 제공되며, 매수인은 매수 전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매부동산의 현황과 상세한 설명은 매수인에게 제공되며, 매수인은 매수 전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매수인은 매수 전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본 공매공고에 기재된 내용은 매수인에게 제공되며, 매수인은 매수 전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매수인은 매수 전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7) 매수인은 매수 전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수인은 매수 전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9) 매수인은 매수 전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0) 매수인은 매수 전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1) 매수인은 매수 전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2) 매수인은 매수 전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3) 매수인은 매수 전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4) 매수인은 매수 전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5) 매수인은 매수 전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016년 12월 16일  
**무궁화신탁**  
MUGUANGHWA TRUST CO., LTD.